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8호 【루게 제2303호】 주제 99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평양

존경하는 각하
우리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의 주회로 2010년 3월 13일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성대하게 열린 《자력갱생-자주에로의 길》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에 참가하는 특전을 지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20세기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내놓으면서 인간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명을 주셨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성에 관한 명백한 정의를 주시셨을뿐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

자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말하여 남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갈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디아, 네팔, 일본 등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인디아의 각 정당 지도자, 법률가, 변호사, 교수들인 우리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주에로의 길이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매개 나라 인민이 제발로 걸어오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면 국제적인 평화와 친선, 선의가 보장될것입니다.

모두가 자력갱생하면 온 세계의 자주화가 더 빨리 실현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당한 존엄을 가진 주체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며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통일된 강성대국으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당신께와 융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우리의 한결같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는바입니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토론회 참가자 일동
2010년 3월 13일 뉴델리

자력갱생 - 자주에로의 길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인디아에서 진행

【평양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자주에로의 길》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13일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장에는 《김정일각하 만세!》, 《주체사상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사무국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 조선사파대학원대표단들이 비롯한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로단들, 인디아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초대되었다.

《김일성군공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가 기조 보고를 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시기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석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따라서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셨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민족해방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이 나아가길 길을 밝혀주시였다.

6 번으로 계속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자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 제13차 회의의 진행, 결정서 채택

【평양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 제13차 회의가 12일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장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부서기장, 리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리사회의 2년간 사업정형을 총회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이해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주체사상연구부급활동을 보다 적극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 제13차 회의는 의정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2012년에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세계적규모에서 뜻깊고도 성대하게 기념하는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개척하시였으며 그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자신의 한결같은 헌신으로, 영리한 태양이시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걸음 이룩해오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자주위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시는것은 시대의 선각자들인 주체사상선봉자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은 주체사상선봉자들과 진보적인민들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의 명절로 된다.

회의는 20세기초에 창시되어 미증유의 전인력으로 인류사주위업을 고루추동하여온 주체사상이 인류로 하여금 새 세기의 도전들에 성과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더욱 다그치는데서 불멸의 지침으로 된다것을 재확인하였다.

회의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가장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화살인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초월한 세계적인 사조이며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정지리념이다.

우리는 시대를 개척하는 위대한 사상의 선봉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안고 주체사상을 생활화 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계속 높이 들고 나갈것이다.

둘째, 2012년을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이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는 2012년을 맞으며 지역의 주체사상연구부급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방조하는 지침으로서의 연구소를 더욱 완벽하게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갈것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은 주체사상선봉자들과 진보적인민들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의 명절로 된다.

회의는 20세기초에 창시되어 미증유의 전인력으로 인류사주위업을 고루추동하여온 주체사상이 인류로 하여금 새 세기의 도전들에 성과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더욱 다그치는데서 불멸의 지침으로 된다것을 재확인하였다.

회의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가장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당장전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한마음으로 총공세의 불길을 높이이고있는 단천지구의 생산,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2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3월에 들어와 증산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도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천지구 생산, 기업소들을 현저도 향상시키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한 믿음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이곳 생산,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2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통양광산에서도 운광에 힘을 넣고 전두장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2월계획을 수행한 자랑을 안고 계속 전진하고있다.

단천마그네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현재와 공사를 다그치는 동시에 당면한 현행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여 2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단천제련소와 단천광산기계공장, 백바위광산, 단천시약공장을 비롯한 단천지구광업총공의 다른 단위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도 2월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단천제련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기술혁신안, 합리화안을 생화학에 받아들이고 2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3월에 들어와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생산과 기업소들에 더 많은 열의와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10월의 대추진전에 승리의 영예를 안고 땀이 떨어질 한마음으로 펼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증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화자생산과 수리에서 혁신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에서

공동사업과 공동주치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2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3월에도 화자생산과 수리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화자생산과 수리에서 혁신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장전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할 한마음으로 펼쳐나선 이곳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화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부속품공과 조합을 맡은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이고있다.

1, 2가공작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화자생산과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있다.

화자조합분공작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달겨진 계획수행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차작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직장앞에 달겨진 대추진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밖에 도 제작장과 프레스작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당장전 65돐을 자랑찬 노력성공과로 빛내일 결의에 더 많은 화자를 대고 조건작업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개성시당위원회에서

올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단천제련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기술혁신안, 합리화안을 생화학에 받아들이고 2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3월에 들어와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생산과 기업소들에 더 많은 열의와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10월의 대추진전에 승리의 영예를 안고 땀이 떨어질 한마음으로 펼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증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의 요구대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특히 령도업적단위들을 본보기로 꾸리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를 열고 당장전 65돐을 맞는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령도업적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킬 목표를 제기하였다. 리상원, 김정남동무를 비롯한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령도업적단위들이 갖는 시연의 공장, 기업소들을 담당하고 당장전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령도업적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시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부서의 직능에 맞게 령도업적단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분발하여 떨쳐나섰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최근시기에 충도식로공장, 어민식로공장, 도자기공장을 개건하고 평화리, 명정리, 영강리를 비롯한 여러 령도업적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킨 좋은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령도업적단위들을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통이고 목표를 내걸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특히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갖는 해신리를 선군시대 선경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통이고 작전을 펼친 시당위원회에서는 정초부터 그 준비사업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또한 개건된 경공업부문의 생산생활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면적의 원료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메세

본사기자 김영철

창진강재 공장

창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3월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을 안고 자랑찬 2호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는 이해와 정의를 다 버려 충실히 일해야만 하는 법이 있었을 것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철강제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방도로 하나를 내부에비비는데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데서 찾고 여기에서 큰 힘을 넣고있다.

유도도에 새로운 용해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2배로 높이는 등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자제의 힘으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편일철강재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열로들의 보수정비를 관자하고 로조작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 연료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질 좋은 소재를 압연공정도에 보내주고있다.

공장의 압연공들은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자제의 힘으로 풀어내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보장단위에서는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을 지체없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맛 좋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
신총력 계음



공동시설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

황 주 군 등 별 안 의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명도자욱이 읊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필름은 풀면 기세로 서불임준비를 힘있게 펼치나 봄철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창조 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정이 새차게 불어치고있다. 멀리나선 황주군 등별의 일군들과 공동시설과 당장전 65쪽에 즈 농장원들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통 천 협 동 농 장 에서

혁신적안목으로 방도를 찾고 실천할 때

공동시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받들고 당면한 봄철영농전투를 들끓는 황주군 등별에 들어서면 올해농사의 전망을 내다보게 하는 좋은 징조들을 찾아볼수 있다. 시적이 절박하다고 통천, 석정, 외상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농장원들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거름을 실어내고 증소농기구준비를 끝내는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른바 이렇다. 우량종종의 강냉이종자와 영농기술 확보, 트랙토르수리정비도 말끔히 끝냈다.

성포의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모든 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통이 뜨개 설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면한 영농전투를 신속하게 지도하고 있는것이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할만 한 문제이다.

거름실어내기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농장들의 실적을

황 주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새로운 결심을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그 농장의 경향을 일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농장들의 과업을 밝으며 실패를 뒤흔어내어 정지사업을 앞세우면서 거름실어내기와 원도장만들기, 흙운반전투를 일제적 확대로 다그치나가고도 하였다.

황주군 등별안의 포진들에 실려나간 거름수들이 짧은 기간에 《효무지》로 변해갔다. 거름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예는 이렇게 생겼다.

거름실어내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시킨 군의 일군들은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전투적으로 내밀었다.

여기서 일군들이 주목을 돌린것은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 등 유기질비료생산정형에 구체적으로 따져보며 높이 세운 생산한도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석정협동농장이 유기질비료생산에서 앞장선 사실을 놓고보자.

군 안의 농가나 나란이 없고 거름원천마저 부족하지만 유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력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밭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는것입니다.》

거름생산을 끝낸 기세로 실어내기에서 큰 일을 벌였다. 이 때 분조장이 모두가 펼쳐나서면 그 원천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하여 자그마한 수첩을 펼쳐보였다. 거기에는 열두바닥씩, 집집순배설, 가친 거름, 물거름의 생산목표와 실적, 생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었다.

책임은 지켰다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눈에 띄이지 않는 사소한것보다 그저 수척보이지 않는다. 군일군은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포지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농장들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거름종류별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정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기질비료생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갔다.

경험은 일군들모두가 언제나 아예에 내려가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사업을 전개할 때 영농전투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어머이수령님께서는 지난해 말에 척박하고 날카로운 새들이 목추길 물머지 없던 불모의

농 산 과 축 산 을 배 합 하 여 협 동 농 장 에서

황주군 석정협동농장의 축산 작업반에서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고있다. 축산작업반만이 아니다. 농장의 모든 작업반이 육분조에서 생산되는 물거름을 다 합치면 그 양은 대단하다. 올해에도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산과 축산의 고품질화생산체제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포진으로 실어냄으로써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몇몇 천 어느날이었다. 지난해 농사경험을 분석한 관리위원장은 놓치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포착하게 되었다. 알곡증산으로 농사군의 본분을 다할 불라는 열의를 안고 모든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이약하게 노력하였지만 정보당 알곡생산량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농사일에서 제일 앞서나갔고있는 제5작업반으로 찾아가는 것은 작업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정적으로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거름 한줌이든 살 한 줄이든 말도 있지 않습니다.》

작업반장이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넘기기도 축산을 잘해야 질 좋은 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 길로 쌀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었다.

관리위원장이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는 곧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축산과 농사를 배합하여 알곡증산의 실적을 높일수 있다는것은 땅의 뜻이다. 결정적으로 축산을 발전시켜 땅의 지력을 높이고 기어이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오자. 관리위원장의 이 호소는 일군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러하여 농장에서는 축산작업반을 종합목장규모로 꾸릴데 대한 목표를 결고 건설에 착수하였다. 그 많은 집짐승들을 무릇 먹여 기르자는것이고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농장의 일군들은 이약하게 축산기진실을 내밀었다. 시적이 절박하다고 그들은 간담이 돼지, 오리, 개사니, 닭, 토끼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들을 기를수 있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건설하였으니 해마다 집짐승 마리수를 늘어 지난해에는 수천 마리의 새끼돼지와 수십의 고기를 생산하였다.

농장의 일군들은 축산작업반을 꾸리면서 동시에 작업반별 집짐승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 농장의 경험은 본받을 만 한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가지 농기구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과 함께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데 우리는 황주군 등별의 작업반을 찾았다. 정문에 들어서니 혁신적인 소식을 전하는 속보판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10여종에 달하는 트랙토르부속품을 생산한 가공작업반, 마지막트랙토르의 대수리를 끝낸 트랙토르수리작업반, 새형의 강냉이탈곡기를 제작완성한 기계제작업반...

속보판앞에서 우리는 창조의 열풍 휘몰아치는 전투장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수 있었다. 우리는 한사람같이 총집중하여

모든 일을 인민군대식으로

회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황해남도려단은 전투력있는 단위로 손꼽힌다. 물길굴뚝기전투실적이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준다.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하여 련달격대원들은 누구나 이렇게 대답한다. 《인민군대를 닮으면 됩니다.》

사상정신과 투쟁방식, 생활기풍도 인민군대를 닮았다는 이들의 고결한 의지가 발전소 건설장에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고있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원들의 혁명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르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황해남도려단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물길굴뚝기공사는 처음부터 생소하였다.

장작업을 해본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였고 작업조건도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작업환경속에서도 련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중요없이 난관을 맞받아나갔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합쳐져 보다 실리적인 설계가 나왔고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혁신적인 가스중화방법을 받아들여 작업능률을 훨씬 높였다.

하지만 거창한 대자연개조전

고 웨치며 결사전을 벌리던 인민군대원들의 투쟁모습이 떠올랐다. “동무들, 우리 힘으로 이 난관을 뚫고나가자.”

대대정치위원의 불같은 호소가 강박성을 잃었다. 이어 자제의 힘으로 정머리를 생산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실제상황을 그 몇번...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 현실성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끝내 자기의 힘으로 정머리생산기지를 일떠세웠다.

강령군, 봉천군대대를 비롯한 련단의 모든 대대들에서도 혁명적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뜨겁게 맥박쳤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련단에서는 이미 여러 구간의 물길굴뚝을 남김없이 판공하였고 기본 물길굴뚝기와 화강, 작업장사를 동시에 밀고나가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물길굴뚝판의 결승선에 우리 련단이 제일먼저 들어서자.

이것이 바로 인민군대를 닮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으로 체득한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심장속에 양념처럼 들어있는 신념의 열기였다.

본사기자 황철웅

창조의 숨결 높뛰는 일려

황주군 농기계 작업소를 찾아서

로력적후원을 전하고있는 총동맹을 안고 작업현장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가공작업반에 들어선 우리는 선반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종업원들의 작업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속보를 지은듯 하여선 수십대의 선반들, 연방 쏟아져나오는 각종 부속품들...

쌓여지는 제품을 보느라니 마치 큰 기계장판에 들어선 느낌이 들었다.

《군안의 농장들에 보내줄 예비부속품가공도 이제는 마감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작업소일군의 자랑에 넘친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울려 주었다.

사실 이들앞에는 수천만 길만이 있는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동시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받아내고 분발해나선 이들은 1월에 트랙토르대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가공을 마감하며 끝낸 기세로 모든 트랙토르들에 예비부속품까지 갖추어주기 위해 펼쳐나갔다고 한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부속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애쓰는 가공작업반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트랙토르수리작업반으로 향하였다.

이 작업반을 가까이하는데 마지막트랙토르를 수리하여 떠나보내는 작업반원들의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기관본체를 새것이나 다름없이 수리해놓은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기본세가 그대로 어려웠던 트랙토르가 그르르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힘껏달려가는 광경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알고보니 짧은 기간에 수십개의 기관본체를 성과적으로 수리하여 농장들에 보내주는 혁신을 일으킨 자랑 많은 작업반원들이었다.

우리는 황주군 등별의 종합적

그것이 숨겨진 뜻밖의 비밀이다.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황주군 등별의 농장들에서는 올해 강병밭 정보당 1.1이상의 소석회를 필요로 하는 등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에서는 농장, 작업반마다 소석회생산기지를 꾸리는것과 함께 이미 있던 석회소의 능력을 더 높여 소석회생산을 늘이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농장들에서는 최근 한달동안에 소석회생산과 실어내기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최고 1.3배로 높였다.

봄철영농전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 군안의 농장들을 들

아보노라면 이른아침과 저녁에 트랙토르와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에 짐을 싣고 세때마다 내려워주는 모습을 볼수 있다. 세때들에서는 실정에 맞게 흙을 구워내어 포진에 실어내고 있다. 또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강병이발 정보당 5~10센의 구운흙을 필요로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뿐만 아니라 농장들의 모든 종족작업반, 작업반육분조들에서는 물거름을 생산하고 낱알집을 집짐승우에서 밍쳐내어 포진마다 실어내고있다.

기계화실현에 것들이 있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더욱 활짝 꽃피우려 혁신의 의지를 안고 펼쳐나선 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으며 걸음을 옮겼다.

농기계작업반에도 창조의 숨결이 높뛰고있다.

자제의 힘과 지혜로 만든 설비들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기계를...

들어볼수록 어디서나 창조의 거센 불길기가 타버려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뜨기를 위훈창조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가고있는 이 곳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황주군 등별에 기계화의 동음이 더 높이 울릴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농기계작업소를 떠났다.

고 산 과 수 농 장 에 주제98 (2009)년 사회주의경쟁 순회우승기 수여

【북청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파인군과 고산파수농장, 통천파수농장사이의 주제 98 (2009)년 사회주의경쟁이 총화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 단원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파수영토를 쌓아올리려 결심한 일군들의 열정과 열의를 빛내고 파수영토를 넓히며 마을을 사회주의선진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

순회우승기가 고산파수농장에 수여되었다.

고산파수농장 기장장 김성룡, 파인군 송무리 리당부부 윤영덕, 통천파수농장 농공맹위원장 리순섭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나라의 파수영토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해 파수영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쟁의 정당성과 생활면이 파수영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추켜들고 당장전 65쪽에 맞는 올해에 파수영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으로써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주제 99 (2010)년도 사회주의경쟁이 발표되었다.

수여식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공동시설을 받들고 철도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철도국에서— 김진명 찍음

창광유지원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어버이사랑

우리는 지금 햇빛넘치는 창광거리에 서있다.
머지않아 새 학년도가교를 맞게 되는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밝고 기쁜웃음 보습이 하나의 웅장한 건물과 더불어 온누리가 비껴들어 우리 가슴 한없이 울렁이게 한다.
창광유지원, 정문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이 글발을 보느라니 어서 오라 손저어부르는 어머니의 살뜰한 정이 느껴지고 당의 품에 자식들을 맡기고 사는 무한한 행복감이 가슴부풀도록 차오른다.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어떻게 되어 수도의 한복판, 그것도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철부지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황홀하고도 훌륭한 유지원이 일떠서게 되었는지,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 어린이들의 이 행복의 요람을 보살피며 지켜주었는지 그에 대해 아는 사람과언 몇몇이랴.
그래서 우리는 창광유지원에 있는 어버이사랑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의 사실부터 먼저 이 글에 담고 싶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이며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창광유지원은 주제 71 (1982)년 9월에 개원되었다.
그때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한 유지원들이 수없이 일떠서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가 수만금을 들여가며 창광

유지원과 같은 세상에 볼드 없던 어린이들의 집을 또다시 일떠세우는데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어느 날이었다.
밤하늘의 별들도 잠에 깨 버리지 못하고있던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이 유지원건립장을 찾아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뛰니뛰니해도 그저 이런 곳에 무엇이 할지모르는가 하시고는 돌리고 머리로 거뜨해진다 고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정답이 말씀하시었다. 그때 사담이, 정답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며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유지원건립에서 걸린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라고, 후대들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시고는 말씀하시었다. 그후에는 유지원을 주유지원으로 하되 일일타사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시였으며 유지원 이름을 《창광유지원》으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었다.
창광유지원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전설처럼 새겨놓은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 사랑, 그 은총속에 창광유지원은 200여개의 공부하는 방과 잠자는 방, 유희실, 물놀이장 그리고 회전빙하와 미끄러대 등 비롯한 갖가지 운동기구와 유희시설들이 마련된 체육공원, 식당 등 어린이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마음껏 뛰놀며 배울수 있게 훌륭히 꾸려졌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한 유지원들도 수없이 일떠서었지만 우리 나

라에서처럼 한 나라 명도자가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건물도 아닌 유지원건립에 그토록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며 전철같은 사랑을 베풀어 사설을 아직 모르고있다.
이런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만사를 놓고 살고있는 것이다.
사람들이여,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어머니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싶거든 창광유지원에 들러보시라. 그리고 꼭 유지원중앙현판에 모셔준다는 어머니 장군님의 말씀에 가슴에 새기시라.
지금으로부터 여러해전 4월 어느날 창광유지원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해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어머리진정을 담아 창광유지원 어린이들가운데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날씩 출장을 나가 한주일에 한번씩 집에 가도 부모를 만나보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을것이라고, 그런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는 무엇이든 할수있고 있지만 사실은 당의 품에 맡겨 놓고 간것이 나 다음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주어야 하며 그대야 자식을 더욱 출장가있는 부모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다고 꼭꼭 말씀하시었다.
이로부터 어머니의 정은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정주부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녀성들의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미처 정을 쏟아보지 못하는 실례는 다분하다. 못다 부어지는 어머

니의 그 정까지 합쳐 당과 국가가 온갖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으니 이 나라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기에 창광유지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세상에 제일 크고 따사로운 어버이 품에 조국의 미래를 맡기고 사는 크나큰 행복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강리코 바쳐왔다.
우선 절세의 위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단위단체 유지원의 면모부터 일선에서 는데 힘을 냈었다. 콩크리트를 된 울타리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현판개건, 다림질장, 난방관교체, 방포화조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 식당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 방대한 모든 일군들을 맡아안고 립체적으로 해쳐왔다.
난관도 없지 않았지만 그들은 온갖고 눈매를 놓지 않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저지도 그 그나나면 길에서 돌아오시다가 언제든지 유지원앞을 지나실것만 같아 그이께 산뜻하고 멋들어진 유지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싶었던 것이다.
이런 불타는 지향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나가 버티고있을 때를 그렇게 또다시 각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광유지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들을 보내주었다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늘 사랑담아 위시는 우리 유지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 넘치는 우리 유지원을 걸로 보나, 안으로 보나 세상제일이

듯가는 유지원으로 푸르자!)
그들은 가슴속에 품어만지는 이런 불타는 맹세를 안고 더 힘껏 분발한 결과 방대한 개건교체를 훌륭히 해낼수 있었다. 동시에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을 위한 사업에서 도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할수 있었다.
러진속, 김광철동무를 비롯한 창광유지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지능교수안들을 집필한것인데 만족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한 지능교육을 강화할 목표에 교수용다매체전집제작에 힘을 넣었다. 그 과정에 유지원에서 배워주는 백두산3매장 교수안리설이야기, 사회주의 도덕, 우리말, 셈세기, 그거기와 만들기 등 여러 과목에 대한 다매체전집들을 해당 과학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와 방조속에 훌륭히 완성할수 있었다.
이밖에도 유지원어린이들에게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상식을 줄수 있는 다매체전집들을 훌륭히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최근시기 이들이 거둔 성과는 대단히 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유지원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을 위해 기술인 이들의 수고를 귀중히 여기시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해를 두시고 거둔다는 절세의 위인의 사랑속에 창광유지원은 오늘도 쾌이로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피어나는 행복된 집으로 길이길이 빛을 뿌릴것이다. 어머니 그 사랑속에 복 받은 선군조선의 미래를, 더 활짝 피어나라!
본사기자 박 옥 경

앞채를 무겁게 메야한다

2층3대혁명붉은기 약학연구소가 최근년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 받아안은 그들은 해마다 많은 약품을 개발하여 전국의 고령약공장, 제약공장들에 도입하고있다.
이런 성과속에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앞채를 든듯히 메고나가는 이 곳 일군들의 남다른 헌신의 자욱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의 어깨에 대고있는 멍이 놓여 있습니다.》
성과가 일어나는 단위에서는 늘 일군들이 무겁게 앞채를 메고 나가는 법이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지난 시기 연구사업에 만 힘을 넣으면서 약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한 판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자책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3년전 어느날 연구소에서는 약용진시위를 열었다. 진시회장은 연구자들이 출품한 100여종의 의약품들이 전시되었다. 하지만 전시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앞아오니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될수 있는 명약들이 많지 못했었던 것이다.
소장 윤영희동무는 그 원인이 연구자들이 현지에 자주 나가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껏 연구자들의 사업조건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와 시약들을 마련하느라 밤낮이 따르없이 뛰어다녔지만 중요한 문제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부터 생산현장에 나갔다. 그러다나니 일감이 두둑, 세운 높아갔다. 스스로 걸머진 짐이었다. 그러나 그 길이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이어져있다는것을 자각한 그였기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뒤를 이어 부소장 조정부동무도 그리고 연구소안의 실장들도 여러 고령약공장과 제약공장에 나갔다.
힘에 부치는 하였던것만 같아는 컸다. 요인은 무엇인가. 일군들이 맨 앞채의 무게에 있었다. 다시말하여 일군들이 가벼운 앞채를 메어서는 단위사업이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없다는 것이다.
일군들이 맨 앞채가 무거운것은 짐이 많이 실려있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의 일군들이 틀어쥐고간것이 있었다. 어느 단위에서나 실력이 있고 육속 불발지만 불발하게 대로의 앞선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연구소의 오랜 연구자들이 그러하다. 한생

을 과학탐구에 바친 그들은 열정에 불타고있었지만 건강상 리유로 하여 웅장한 마력을 내지 못하였었다.
김창룡동무는 단위일군으로 임명된 다음날부터 오랜 연구자들의 가정방문을 진행하였다. 그의 어머니다운 사업공포는 많은 연구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특히 출장길을 떠나는 연구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르는 세심한 보살핌은 그들이 새로 개발한 약품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불철주야의 투쟁을 벌리는데서 힘이 되었다. 몸이 불편하여 누웠었던 그들이 그 누구보다 많은 연구자들을 내놓음으로써 대오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연구소에는 고령의 녀성박사들이나 리희숙, 김영철동무들과 주성운, 오수산, 한호석, 문관심동무를 비롯한 오랜 연구자들이 있었다. 리희숙동무는 유선암치료에 좋은 고령약을 강제고령약공장에서 개발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그렇지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비롯한 몸이 지친 학과대학을 돌아와야 조국의 여러곳을 밟고있다. 경험은 무엇인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이 중심고령를 바로 짓고도 불발지만 불발하게 대로의 앞선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연구소의 오랜 연구자들이 그러하다. 한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쁨공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쁨공전을 찾아 18일 캄보디아왕국 국회의 의원인 싸움 쉐위민장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조전선선원의원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이민위척의 리념을 구현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인류의 자주위업과 나라

들사회의 친선관계발전엔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캄보디아조전선선의원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게 가장 숭고

한 경의를 드린다 고 하면서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않고있다고 했다.
그는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조선민족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영원한 수령, 길잡이 위인이시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실용실험을 통하여 앞날의 유능한 기술인재들로 준비해간다. -청진관광산업대학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는 김강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함께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온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강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확효비공사환사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확효비공사환사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었다.

알렉산드르 쏘볼로브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차이콥스키명칭 모스크바 국립음악대학대표단이 18일 귀국하였다.

로씨야 차이콥스키명칭 모스크바 국립음악대학대표단 귀국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볼스카공화국 외무성대표단 귀국

크쉬슈프 슈스키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볼스카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1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볼스카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하라! (공동구호에서)

겨울철훈련에서 이룩한 성과의 비결

평양 체육단에서
본격적인 겨울철훈련에 들어가게 앞서 체육단일군들은 체육단일군들을 조직하였다. 출원자는 조선체육대학 교원이고 강의내용은 육체훈련 지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겨울철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당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지졌는 체육과학기술자들로까지 안받침하여 진행된 강의는 강독들속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강의과정에 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강사는 매번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었다. 이날의 강의는 비단 강독들의 기술실적자질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었다는데만 그치지 않고 강독들의 각의 의를 통하여 종목별강독들모두가 자기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이번 겨울철훈련에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 비대한 각을 가지게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체육단일군들이 대충의 정신력발달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 특히 이렇게 강독들부터 더욱 분발시킨것은 겨울철훈련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게 한 비결의 하나로 되었다. 강독들은 자기 종목 선수들의 심장에 불

을 담며 첫날부터 육체훈련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부단장 박정현, 과학 김창암동무를 비롯한 교수훈련부문의 일군들과 체육과학연구소, 의료연구소들모두가 훈련장지에 나가 한주일동안 한꺼번에 집중지도하고 하면서 감 독들속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강과정에 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강사는 매번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었다. 이날의 강의는 비단 강독들의 기술실적자질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었다는데만 그치지 않고 강독들의 각의 의를 통하여 종목별강독들모두가 자기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이번 겨울철훈련에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 비대한 각을 가지게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체육단일군들이 대충의 정신력발달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 특히 이렇게 강독들부터 더욱 분발시킨것은 겨울철훈련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게 한 비결의 하나로 되었다. 강독들은 자기 종목 선수들의 심장에 불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자들

체육과학연구소에서 올해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간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체육과학연구소자들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체육과학연구소에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구소의 일군들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도로 들끓는 시대의 승리를 위해 체육과학의 첨단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첨단과건의 전조범을 미리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실시하고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학술발표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이 땅에 든든한 발을 붙이고 세계를 넘어보는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성공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실력

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곳 연구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중단없이 내민면서 동시에 체육과학기술과 관련한 외국문도사들에 대한 번역사업에도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이 과정에 마련되는 가지있는 정보자료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연구자들을 줄기장게 내밀고있는 연구자들의 기세는 매우 좋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체육과학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체육을 높은 수준에 빨리 올려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담보이다.
첨단기술에 대한 당의 사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탐구의 열정을 더욱 폭발시키려는 이 곳 일군들과 연구자들의 투쟁은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 승리의 금메달들을 더 많이 안아올릴것이다.
전 철 호

우리 축구팀의 월드컵경기대회준비과정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높다.
외국의 한 신문은 지난해 10월 프랑스에서 이 나라의 한 축구구리부밍과 아르헨티나의 포고림과 진행한 우리 팀의 경기과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우리 팀은 올해에 들어 두루끼에서 진행한 집중훈련을 통해서서 좋은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에 여러 유럽팀들과 친선경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두차례는 이기고 두차례는 비기었다. 최근 아시이축구시맹은 《조선남자축구팀이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의 해외훈련을 포함한 바쁜 훈련일정을 새우고 1966년이래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준비를 다그치고있다.》고 전했다.
우리 국가축구종합팀 감독, 선수들은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비찬 승결과 심장을 뛰이며 맹렬한 훈련을 통하여 팀의 기술, 전술 체계를 더욱 완성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자력갱생 - 자주에로의 길

가장 우월한 조선의 교육제도

외국인들의 반향

1번에서 계속

탁월한 영도력과 고상한 인품을 지니신 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민족해방전쟁으로 불러일으키시므로써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20성상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나날에 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역량을 마련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영원히 틀어쥐고나간가야 할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애사자로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자주에로의 길인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알리는데 조신께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론회 인도아에서 진행

태양절로 명명하며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김일성각하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주석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게 하시였다.

김일성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진두에 서계시오 하여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하시며 그의 위대한 혁명력은 끝없이 흐르고있다.

나라의 위대성은 제부나 영토의 크기, 인구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걸출한 수령을 모시면 위대한 나라로 된다.

조선에는 영도자의 부름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수천만의 투사들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김일성각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이러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들자》, 《선군정치의 사상과 실천》**, **《선군정치와 김일성》**, **《세계의 자주화와 국제분단》**, **《주체사상-영광한 삶에로의 길》**, **《자주에로의 길》**을 발간하는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인사를 소개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주소 사무원 조 오카미 정이제는 현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민대중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진보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력사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진보적인 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투쟁해온 조선인민의 력사와 경험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세대에도 두 세국주의를 타승하시어 주체사상의 불패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셨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다.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일성총비서께서는 반제자주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실것을 기원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오늘날 보편적인 사상으로 세계에 급속히 퍼지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진보적인류의 사상이라는 뜻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주체사상연구부그룹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것을 광범한 대중자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고있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연구부 그룹활동과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주체사상을 세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연구조직들을 확대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내 팔주체연주소 소장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마르크스라 슈테타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하신다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선군정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앞살라려는 미제의 책동을 쫓아내고 조선인민의 력사와 경험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세대에도 두 세국주의를 타승하시어 주체사상의 불패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셨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다.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일성총비서께서는 반제자주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실것을 기원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오늘날 보편적인 사상으로 세계에 급속히 퍼지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진보적인류의 사상이라는 뜻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주체사상연구부그룹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것을 광범한 대중자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고있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연구부 그룹활동과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주체사상을 세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연구조직들을 확대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내 팔주체연주소 소장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남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국가의 해탈속에도 누구나 마음껏 배우는 현실을 목격하고 조선의 무료교육제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성주수학교를 참관한 중국 무수현 실험소학교교과단장 장궁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경이로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